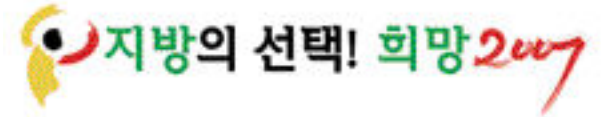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6차 공동 여론조사



# 정동영 후보에 호남표 결집 가속...2위 약진

광주일보를 비롯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전국 9개 유력 지방일간지로 구성된 한국 지방신문협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을 살피기 위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과 8월, 10월, 11월 초, 11월 말에 이어 여섯번째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공표 시한 마감(12일) 직전인 지난 9~10일 이틀간,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실시돼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리서치 앤 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천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200~300명씩 할당해 표본을 추출한 뒤 그 결과에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다. 광주·전남의 조사표본은 400명이다. 조사에는 구조화된 질문지와 숙달된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이 사용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5.7%였으며, 전체 조사의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포인트다. 서울과 경기도는 ±5.7%포인트, 광주와 전남 등 나머지 14개 시·도는 ±6.9%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다.

## ‘1강 2중’ 구도 지속... 선두와 격차 30%P 鄭 지지 광주·전남 43% 전북 54% 상승세

### ■ 대선 후보 지지도

◇전국 지지도=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두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10%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양강 구도를 이뤘다. 한나라당 경선 선두와 격차는 3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이명박 후보는 47.2%의 지지를 얻어 BBK 수사결과 발표 이전인 지난달 23~24일 제5차 조사(40.7%)때보다 6.5%포인트 상승하며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경선 직후부터 지난 10월까지 50%대에 달했던 이 후보 지지율은 이회창 후보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달 7일 제4차 조사때 39.8%까지 하락했다. BBK 수사결과 발표가 이명박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순위가 바뀌었다. 정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5차 때보다 1.5%포인트 상승한 14.1%를 얻어, 13.6%에 그친 이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달 말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외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6.4%,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4.0%를 각각 얻어 5차 조사때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1.0%포인트 하락한 1.0%에 그쳤다.

이명박 후보는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

의 고향인 경북(66.1%)은 전국 최고의 지지를 보였다. 이어 대구(58.1%)와 부산(56.8%), 울산(52.8%) 등 영남권은 물론 경기(54.3%)와 강원(50.0%)에서도 절반 이상이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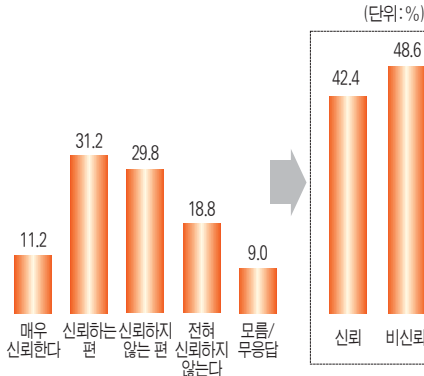
이명박 후보는 충청권에서도 이회창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청 표심을 좌우하는 대전에서 41.1%를 얻어 이회창 후보(16.7%)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이회창 후보는 5차 조사때 대전에서 27.8%의 지지를 얻어 이명박 후보(27.4%)를 오차범위내에서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의향층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절반이 넘는 51.4%의 지지를 얻었고 정동영 후보는 14.6%로 두 후보가 전체 지지율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기록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13.3%를 기록, 다소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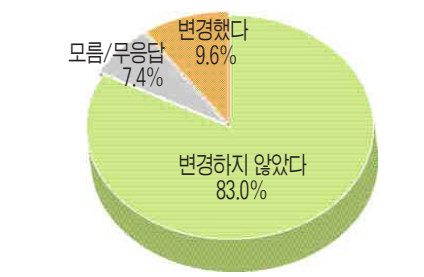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80.7%가 이명박 후보를, 11.5%는 이회창 후보를 각각 지지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은 80.7%가 정동영 후보를, 5.5%는 이회창 후보, 4.5%는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지지도=정동영 후보가 5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율로 3~5차 조사에 이어 선두를 지켰다. 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5차 조사 때에 비해 광주(37.5%→47.1%), 전남(36.2%→40.6%), 전북(41.9%→54.3%) 3곳 모두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정 후보의 고향인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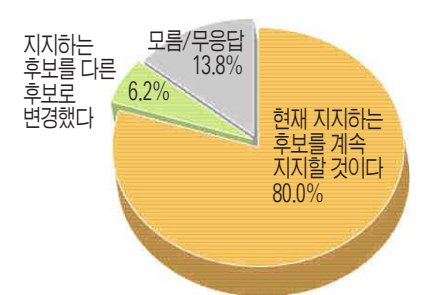
### ■ BBK 관련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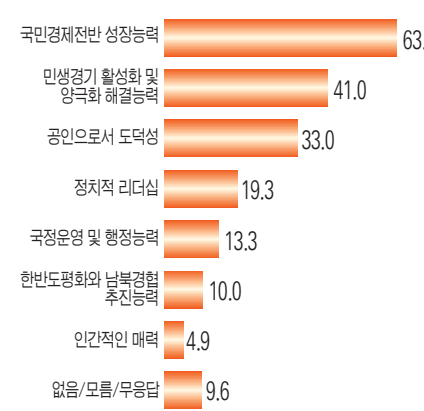
### ■ BBK 검찰 발표 이후 지지후보 변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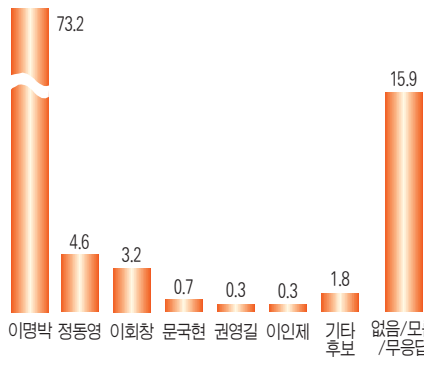
### ■ 1차 TV토론 이후 지지후보 변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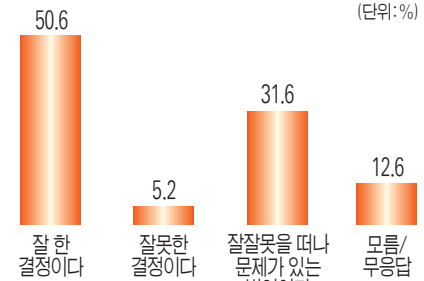
### ■ 대통령 후보 평가 기준 (중복응답)



### ■ 대통령 당선 가능성



### ■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 사회 환원



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호남 표심이 결집, 정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2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 후보가 선거 막판 지지를 상승을 바탕으로 약진 가능성을 보여준 가운데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호남 표심과 동조화 현상을 보여준 수도권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 후보는 서울 13.6%, 경기 10.0%, 인천 9.4% 등 자신의 평균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를 얻어 전이 현상이 관측되지는 않았다.

4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광주·전남 평균 지지율로 보면 정동영 후보 43.2%, 이명박 후보 14.1%, 이회창 후보 8.3%, 문국현 후보 7.7%, 권영길 후보 5.2%, 이인제 후보 4.7% 순이었다. 부동층은 10.7%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 2위를 기록한 이명박

후보 지지율은 5차 조사때보다 1.7% 상승한 반면 3위 이하 후보들은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특히 보수 진영인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의 지지를 합계가 22.4%에 달해 과거 대선 때와는 사뭇 달라진 표심을 반영했다.

◇당선가능성=지지후보와 상관 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73.2%가 이명박 후보를 꼽아 가장 높았다. 이어 정동영 후보 4.6%, 이회창 후보 3.2% 등 다른 후보들은 5%미만에 그쳤다.

광주·전남에서도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점치는 유권자가 55.5%에 달했고, 정동영 후보라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의 88.0%, 신당 지지자의 49.7%, 민주당 지지자의 55.8%가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봤다.

## 검찰 발표 후 지지후보 “변경하지 않았다” 83%

### ■ BBK 수사 결과

◇검찰 발표에 대한 신뢰도=BBK 추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후보와는 관계 없다는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8.6%로 ‘신뢰한다’ 42.4%에 비해 약간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는 65.5%가 ‘신뢰한다’에 무게를 둔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대통합민주신당(83.2%), 민주노동당(85.1%), 창조한국당(90.9%) 등 나머지 모든 정당 지지자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검찰 발표 이후 지지후보 변경 여부=‘변경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3.0%로 ‘변경했다’(9.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검찰 발표가 대선 판도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BK 관련 특검법안 발의=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명박 후보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41.3%, ‘반대’가 41.8%로 팽팽히 맞서 정권권의 공방 못지않게 국민들도 양분되는 양상이었다.

## “李-昌 후보 단일화 안될 것” 67%

### ■ 이명박-이회창 단일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보수 대통합 필요성에 대해 ‘필요없다’는 응답이 48.7%로 ‘필요하다’ 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일화가능성에 대해서도 66.5%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가능’은 18.7%였

다. 하지만 만일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72.3%는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단일 후보로는 57.7%가 이명박 후보를, 31.2%는 이회창 후보를 꼽았다.

유권자들은 양 후보 모두 단일후보로 나선 경우 범여권 후보들을 20%이상 격차로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 후보 평가 1순위 ‘국민경제 성장 능력’

### ■ TV토론회 평가 등 기타

지난 6일 선관위가 주최한 제1차 TV토론회 이후 지지후보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결과 80.0%가 ‘계속 지지’ 입장을 보였다. 6.2%만이 ‘다른 후보로 변경’ 의견을 내 TV토론회 이후 지지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 사회환원’ 발표에 대해서는 ‘잘 한 결정’(50.6%)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잘못뉘는 뉘는 발언’이라는 응답도 31.6%나 됐다.

후보 평가 기준(복수응답)으로는 63.3%가 ‘국민경제 성장능력’을, 41.0%는 ‘민생경기 활성화 및 양극화해결 능력’을 꼽아 5

차 조사 때보다 상승한 반면 ‘공인으로서 도덕성’은 33.0%로 5.7%포인트나 하락했다.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79.5%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대해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5차 조사때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52.6%로 2위인 대통합민주신당(12.1%)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어 민주노동당 4.7%, 창조한국당 3.1%, 민주당 1.8% 순이었다.

광주·전남 정당지지도는 대통합민주신당이 34.9%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은 11.9%를 얻어 민주당(10.4%)을 제치고 두 자리수 지지율을 이어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점  
222-3700

남해관광여행사 225-5544  
세진여행사 224-4935  
월드항공여행사 225-2255  
투어뱅크여행사 224-0022  
호남해외여행사 222-7200

가족여행, 은천탐방, 하우스텐보스

# 日本 무안-후쿠오카 직항 전세기

2008년 1월 8일-20일 6회 운항

- 1. 귀순양정 1월 8일 ₩299,000
- 2. 귀순양정 1월 15일 ₩549,000
- 3. 귀순양정 1월 22일 ₩649,000
- 4. 하우스텐보스 특급3일 ₩689,000
- 5. 귀순양정 1월 29일 ₩689,000
- 6. 하우스텐보스 4일 ₩789,000
- 7. 오사카, 귀순양정 4일 ₩789,000